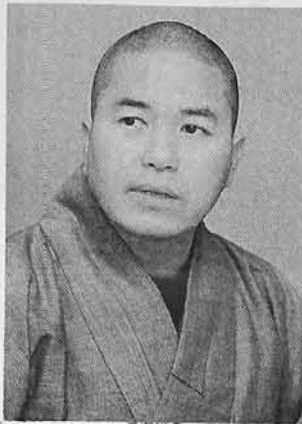


승가교육의 오늘

특 집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 현광 스님

합니다. 그러기위해 교육에 관한 공청회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자교육에 대한 고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먼저 승가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연=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와 강원도의 졸업생에 대한 진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전문화 교육도 1인1기를 갖도록 교육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전통의 수행과 현대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 중에는 철저하게 규율을 적용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심어주어야 합니다.

▲현광=성직자에 대한 교육은 무엇 보다 일상의 투명성과 선명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는 지계를 엄수하고 수행을 철저히 하는 점에서 재가불자와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종교는 사회와 격리되지 말고, 대중들의 정서 깊숙히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때 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교육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문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 해야 합니다.

서구는 지금 윤리·도덕의 타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윤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현실과 같은 작은 실행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재가자의 교육의 발을 가는 교육이라면, 출가자의 교육은 씨를 뿌리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재가자와 출가자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박선영=종단의 어른들이 큰 뜻을 내시고, 교계 언론들이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계의 실행 단체와 신도들도 결속하여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교육이 바로 설 때 한국불교의 장래가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특별 취재반>

▲각성=교육이 불교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가 풀리면 종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윤곽을 시정되면 10년 이내로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개혁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승산=교육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출세간의 백년대계 “청사진이 흐리다”

“92년 중무행정정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승려의 14.1%가 기본교육을 기피하거나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원에 입방한 초심자까지 합하면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승려가 30%에 이르고 있다.”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새삼 충격을 던져주는 승가교육의 현실이다.



◇ 승가교육이 현대사회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강원도의 수업장면.

조계종이 교육법으로 규정된 승가교육은 기초과정인 행자교육원과 기본과정인 승가대학, 학원 승가대학원 출신 선학연수원 등의 전문교육과정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학원과 승가대학원 선학연수원 특수학교는 교육법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초교육과정은 출가해서 사미(나)계 수지 이전의 행자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출가한 본사에서 기본승의와 의식 송수를 익히고 사중소임을 본다. 이후 1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행자교육원에 들어가 3주과정의 단기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의무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미 사미니는 반드시 종단 기본교육과정(승가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승려법 16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구(나)계를 받으려면 '연령 20세 이상으로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승려법 18조)로 그 자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로소 스님으로 인정되는 비구(나)가 되는 것이다.(승려법 3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1년 8월부터 94년 9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나)는 모두 1679명에 이른다.

특히 92년에는 409명, 93년 509명이 행자교육을 마쳤다. 이 가운데 기본교육과정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에 입학한 사미(나)는 50여명으로, 나머지 870여명은 지방승가대학 또는 선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93,94년 지방승가대의 사미과 사지과에 입학한 학

인은 484명 뿐이다. 나머지 약 42%에 이르는 384명의 사미(나)는 기본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승가대와 중앙승가대를 2년 전 졸업한 한 스님은, 본인을 포함한 4명의 도반 가운데 승가대를 졸업한 스님은 혼자 뿐이라며, "사미의 경우 45%, 사미니의 경우는 15% 정도가 기본교육을 받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1인 44명지도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승가대학은 모두 15곳(비구 10, 비구니 5)으로, 학인수는 해인사 102명을 비롯 모두 863명이다. 지방승가대학(전통강원으로 불렸으나 87년 종령 66호를 통해 명칭을 승가대학으로 통일)은 행자교육원을 마친 사미(나)를 교육하는 곳으로 수업년한은 4년이다. 사미과 사지과 사교과 대교과로 나눠 각1년의 수업년한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승가교육이 행해지는 지방 승가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미(나)들의 치문(사미과), 서장(사지과)을 가르치며, 경행과 달리 엄격 기술훈 금강경 원각경(사교

과) 화엄경(대교과) 등의 이력과목을 공부한다. 송광사는 이 기본과목에 보조교육을 보살과목으로 추가시키고 있다.

강사는 강주를 포함 47명으로, 15개 승가대학 평균 3.1명이다. 강사 1인당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44.4명의 학인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 1인당 18.4명의 학인을 지도하므로 10명 내외의 학인을 강사 1명이 지도하는 경우가 이상적이라 가정할 때 현재의 숫자보다 80% 정도의 강사를 더 필요로 한다.

외전은 주로 영어·일본어·중국, 컴퓨터, 인도 중국 한국불교사, 꽃꽂이 등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형식으로 진행한다. 비구나 승가대학의 경우 피아노를 배우기도 한다. 송광사는 외전이라도 재가에게 맡기지 않고 승려만을 초빙한다.

공부방법은 보통 한문불전의 문장해석 위주로 이루어진다. 전통의 방법인 논강이 있으나 이것은 사교과부터 실시한다.

논강법은 한 사람이 그날 배울 글의 뜻을 풀이하면 반원은 모두 경청하다가 자기의 견해와 달리 해석할 때에는 서로 기탄없이 토

론하며, 끝내 의견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강주에게 묻는 것이다. 지관스님(해인사 주지)은 "논강법이 고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도입과 실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실한 기초교육

이에 앞서 승려가 되고자 사찰에 입산한 행자들은 6개월여 동안 입산사찰에서 (초발심자경문)과 영불 습의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4대 총림을 비롯한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입산사찰에서의 행자교육은 거의 실패를 과약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교구본사인 한 사찰의 경우 매년 300~400명의 입산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수계한 행자는 10~20명 밖에 안된다. 이같은 원인은 "행자에 대한 별다른 관심도 없고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행자가 출가하면 아무런 대책없이 후원에서 생활하게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계를 받게 하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찰의 경우는 다른 본사에 비해 행자교육이 잘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이다. 원

주스님과 교무스님, 율원과 승가대학의 구함학인이 행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사찰의 경우 갖사미(나)계를 수지한 선배가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행자교육원에서는 3주의 기간 동안 △행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교학의 이해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 △예참과 기본불교의 식 수련 등을 교육목표로 선학 경학 율학 습의 등을 교육한다.

선우도량(대표선우 도법)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불교 승가교육 개혁안'의 지적이 아니라도 "시대를 선도해나갈 올바른 수행자 양성은 승가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계종은 종헌과 교육법 등 각종 중법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승가교육의 이력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출가해서 기초교육과정인 행자교육원을 통해 사미(나)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과정인 승가대학을 마치고 비구(나)계를 수지, 비로소 승려가 되는 것이다.

‘논강법’ 전통 살리며 내·외전 균형 맞춰야 행자교육 일관성 없어...수계 조건 강화 필요

승가교육은 대체로 사미(나)의 52.7%에 입학할 정도로 전통강원 즉 승가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승가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국불교 청사진의 밑그림이 짙은 단면이다. 이에따라 승가대 교육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선우도량 해인사승가대학이 마련한 각종 과담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해결같은 문제점은 △현재의 교과목은 300여년전인 조선후기에 정착된 것으로 현대사회와 연관성이 떨어져서 △선불교 위주의 교과목 편성과 사회·역사적식을 개발할 외전과목의 부족 등 교과과정의 개발문제, 그리고 △한문불전

에 대한 훈고학적인 문장해석 위주의 공부방법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배운 교수원원의 부족 등 여러가지들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은 대중생활 속에서 익히는 단체수련과 조식에 불, 발우공양, 어른스님 모시는 법, 윤력 등을 통한 승가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장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한편 이같은 문제점은 대중생활 속에서 익히는 단체수련과 조식에 불, 발우공양, 어른스님 모시는 법, 윤력 등을 통한 승가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장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Advertisement for 'Buddhist Market Specialization Era' (불교 유통의 전문화 시대) featuring book releases like 'Sokgamonni' (석가모니), 'Gyeongbongdaesansa Beomjeom' (경봉대선사 범어집), and 'Samsa's Hange' (산사의 향기).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won Mojin' (사원 모진).